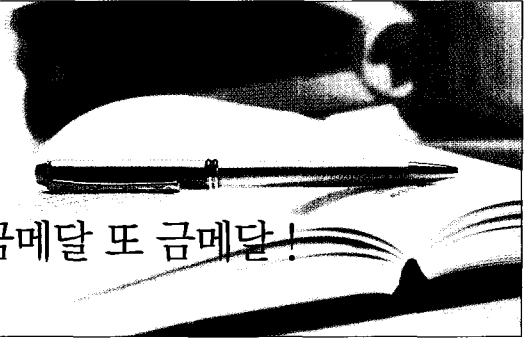


우리는 행복하다

- 설날 연휴에 날아 온 기쁜 소식, 금메달 또 금메달!



어느 시골 마을에 생선장수가 들어왔다. “고등어나 콩치~, 싱싱한 고등어 있어~이, 콩치 있어~이.” 생선 장수는 크지 않은 마을을 지계를 지고 돌아다니며 크게 외친다. 여기 저기서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나와서 고등어와 콩치를 구경도 하고 어느 녀석이 더 크고 싱싱할까 뒤적거리려 보기도 한다. 조금 여유가 있는 아주머니들은 큰 맘 먹고 고등어 혹은 콩치를 사서 들어간다. 이 마을의 그 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 저녁상이 풍성해지고 즐거웠다.

찢어지게 가난한 김 영감 집도 이날은 생선국이 끓여졌다. 비린내로 인해 맛있는 저녁을 드신 김 영감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 아가야.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맛있는 생선국을 끓였냐? 우리 형편이 말이 아닌데...” 몹시 망설이던 며느리가 어렵게 시아버님께 답한다. “아버님, 실은 오늘 생선장수가 왔었는데요. 돈은 없고 아버님께 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싶어서 생선들을 뒤적거리기만 하고 돌아와서 손에 묻은 생선 비린내를 씻어서 국을 끓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시아버지 왈, “그래? 그 두 손을 한번에 씻었냐? 한 손은 두었다가 널 쓰지 않구서리...”



장금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들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가들은 당리당락을 위해 썸박질만 한다. 사회도 어지럽다. 질병도 많아지고, 물이나 공기도 오염되고, 음식물도 이런 저런 것들에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빙하는 녹아서 인류를 위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언론도 항상 그렇게 말한다. 심지어 (인류를 구원한다는) 종교 단체에서도 이 사회가 예전 보다 아주 많이

나빠지고 어려워진 것으로 말하고 걱정한다. 필자도 덩달아 그런 것 같아지고 옛날이 훨씬 더 좋았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 해 준다. 옛날에는 있었으나 요즘은 없는 것들.

쓰러질 공간 여유도 없이 붐비는 버스에서 구불구불하고 덜컹대며 하루 종일 혹은 며칠씩 가야 했던 귀향길. 동네 어른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고 세뱃돈보다는 떡국만 하루 종일 얻어먹던 설날, 서울 한 번 다녀오면 큰 출세라도 한 것처럼 빠기던 일, 지금은 큰 액수도 아닌 학비를 내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거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가던 아이들, 도시락(그릇)이 없어서 점심을 싸 가지 못하던 친구들 아니 싸갈 음식이 없으니 구태여 돈을 들여 도시락을 사 놓을 필요도 없을 정도의 가난, 마을에 한 대 밖에 없던 그 흑백 텔레비전을 밤마다 온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들어 함께 구경하던 광경, 겨울 땀감을 마련하기 위해 산으로 나아가 마른 풀과 낙엽을 모아오던 모습, 겨울이면 어머님들이 빨래를 하나 가득 머리에 이고 미끄러운 눈길을 지나 지하수가 솟는 웅덩이나 냇가로 나가서 빨래하시던 모습, 일철이면 커다란 광주리에 새참을 가득 담고는 서커스단처럼 좁은 들길을 걸어가는 아주머니들(아마 농촌을 떠난 어른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새참을 내가는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설날 아침,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경주에서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아시아 인으로는 처음이라한다. 기쁨의 환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종목이지만) 이정수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이틀 후에는 모태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더니 그 다음날엔 급기야 이상화 선수가 여자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남녀가 동시에 금메달을 석권한 것은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한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자들도 이에 대한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 기사를 작성하기가 당혹스럽다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나서야 그들의 훈련방식, 국제 규격의 실내 스케이트장, 과학적인 처방 및 훈련 등을 그 비결로 찾아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은 실내 스케이트장이나 과학적 처방에 의한 훈련이 없었을까? 아니, 그들은 이미 전부터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의 환경이 이미 예전이 아닌 발전된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주역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태어났다. 찢

어지게 가난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이다. 이로써 이들은 선진국 선수들과 신체적 조건이나 훈련 환경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결과의 하나로써 이번 경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내가 본 광경 중 하나는 유난히 초조해하고 어색해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화 선수는 결선 2차 시기 직전에 기다리는 동안 MP3로 노래를 들으며 안정된 모습으로 경기장 모습을 즐기듯이 돌아보는 것이었다.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너무 긴장되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했는데 올림픽 결선에서 긴장하지 않는 선수가 어디 있겠는가?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독일의 예니 볼프 선수는 경기 내내 심각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던 것을 보면 우리 선수들은 세계무대에서 심리적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다.

불과 몇 년 전 미국 여자프로골프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박세리 선수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에게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으나 기성 세대가 지고 가는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이 한 쪽에 남아 있다. 그래서 즐기기보다는 전투적으로 경기에 임한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필자는 이청룡 선수로부터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1988년 생이니 그도 서울 올림픽 이후 세대라 할 수 있다. 그에게 축구는 전투가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다. 이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꿰리지 않는 국가가 되었음을 실증하는 생생히 살아있는 증거이다. 우리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을 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할 도전을 만나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자. 마치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아우성 치지 말자. 그 도전에 당당히 맞서서 해결해 나가며 인생을 즐기자. 비싼 술을 퍼먹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비싼 승용차를 타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즐긴다 말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내가 작은 돈을 내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소년소녀 가장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사랑하자. 나에게 정말로 잘 대해주자. 우리는 행복하다.

그거 아세요? 모태범 선수는 튼튼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항상 닭 가슴살을 먹었대요. 심지어는 회식 자리에도 닭 가슴살을 싸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의 근력은 일반인의 3.7배가 넘는대네요.